# 곡성, 할머니 손편지로 이룬 '마을빨래방 프로젝트' 모금 성공

## 3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모금액 달성

## 고령화율 높은 지역 2개소에 설치 예정

곡성군이 어르신들을 위해 추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 '마을 빨래방을 선물하세요'가 목표액을 달성했다.

곡성군은 세번째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인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 빨래방 프로젝트'에 1억8860만원이 모금됐다고 15일 밝혔다.

곡성군은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2개소에 마을 빨래방을 설치한다.

또 모금된 기부금으로 빨래방 공간을 조성하고 세탁기와 배송 차량 등을 구입해 마을사랑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 '상주의사 진료'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 고향사랑 세번째 지정기부 사업인 '마을빨래방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곡성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의 인생과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활용해 홍보해 젊은 층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할머니의 손글씨가 담긴 답례편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기부자들은 마을빨래방 사업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기부자들은 "기부금만 보낼 생각이 었는데 할머니의 손편지를 받고 눈물까지 흘렸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연말정산으로 받는 혜택보다 할머니 손편지의 감동이 더 크네요"라고 답신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마을빨래방 프로젝트에 참여한 1500여명의 기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어르신들이 깨끗한 이불을 덮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빨래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마을빨래방 사업 외에도 지역의 아이들이 소아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주의사 인건비를 모금하는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와 지역 내 버려지는 동물을 보호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곡성=홍경백 기자

## 순천, 온누리 공영자전거 봉사활동 2기 참여자 모집

순천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자 '온누리 공영자전거 봉사활동 인증 프로그램' 2기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하루 30분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면 봉사활동 시간 30분이 인정되는 제도로, 2기 모집 신청은 인터넷(https://naver.me/GwpCIbVz)을 통해 가능하다. 활동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된다.

자전거 이용 시 대여와 반납 위치는 달라야 하며, 여러 번 나눠 탄 시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 또는 교통정책과(061-749-6367)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1기에는 4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전거 이용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실천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봉사시간이라는 보람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으로 자전거 친화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 광양,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락(絡)모락(樂)' 성료

광양시는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2025년 광양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락(絡)모락(樂)'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창의성, 자율성 증진 및 인성 계발을 목적으로 마련된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올해 첫 행사인 'Dream Stage'에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촉식과 청소년 동아리 인준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이 댄스 공연을 통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했다. 또한, 세월호 추모 캠페인, 소품을 활용한 포토부스 등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돼 행사장을 찾은 3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장을 찾은 포스코 아름드리나눔푸드 봉사단이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청소년 여러분이 본인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광양시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 구례-장성,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로 전남체전 성공 기원

### 구례군 스포츠산업과 · 장성군 체육사업소 소속 직원들 참여

구례군과 장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 기부를 실천하며 전남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2025년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지인 장성군과, 2026년 개최지인 구례군 간의 체육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구례군 스포츠산업과와 장성군 체육사업소 소속 직원 30명이 참여해 서로의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양 군은 이번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 간 우의를 다지는 한편, 체전 준비 및 체육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순호 군수는 "장성군과의 상호 기부는 체육을 매개로 한 지방 간 상생 협력의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도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성공적인 체전 개최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구례군은 올해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는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구례=오광범 기자

## 광양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센터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호응'

광양시 어린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틀간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에서 체험형 영양교육 '흙에서 배우는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흙에서 배우는 식사'는 광양시와 국립순천대가 함께하는 연계사업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순천대 농업과학교육원의 협조를 받아 스마트 농업 시설인 그린스마트팜 유리온실과 교육 공간에서 진행됐다. 이번 체험형 프로그램은 광양시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 중 1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234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유리온실을 견학하며 식물이 자라는 환경과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작물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딸기, 바나나,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을 직접 보고 먹어보며 식재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활동 후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이 진행됐다.

## 김철우 보성군수,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보성군은 김철우 군수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전국적 공감대 확산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지역과 공공기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전국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군수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하승철 하동군수를 지목해 지역 간 공동 대응의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군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그간 추진해 온 인구정책의 성과와 철학을 군민과 국민에게 알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보성=장국도 기자

## 순천-광양시 청년연합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 체육 · 문화행사 협력…지역 청년 간 동반성장

순천시 청년연합회는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광양시 청년연합회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순천시 청년연합회 정창현 회장과 광양시 청년연합회 안타국 회장 등 청년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순천시와 광양시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지역 청년 간의 동반성장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청년 주도의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청년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양 청년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체육 행사, 문화 행사, 사회봉사,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공동 기획 · 추진할 예정이며,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상호 간 활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 '월드 헤리티지 데이 in 순천' 이벤트로 1박 2일 숙박권 제공

### 세계유산축전 시작 알리는 내 · 외국인 관광객 모집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순천 1박 2일 숙박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월드 헤리티지 데이 in 순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세계유산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홍보 이벤트로, 개인 SNS에 간단한 미션을 수행한 내 · 외국인에게 순천에서의 1박 2일 숙박권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순천세계유산축전' SNS 채널을 팔로우하고 해당 게시글을 좋아요, 댓글, 공유해야 한다.

이후 개인 SNS 채널에 '순천세계유산축전 한국말 응원 영상', '참여 희망 에세이', '순천 세계유산 소개' 중 하나를 골라 게시하고 네이버 폼으로 인증하면 된다.

선정된 15팀에게는 순천정원워케이션, 순천만에코촌,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등 순천을 대표하는 숙박시설 중 한 곳의 숙박권이 제공된다. 숙박권은 순천 세계유산축전 기간인 오는 9월 13일, 9월 20일, 9월 27일 중 하루를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월드헤리티지데이 in 순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 세계유산축전 누리집(www.scwhf.com)을 참고하면 된다.

김준선 위원장은 "순천 세계유산축전을 세계에 미리 알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국내 · 외 관광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순천 세계유산축전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선암사와 순천 갯벌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순천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일상에서도 유산가치를 손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 보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 공급업체 추가 선정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총 96개 품목의 답례품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난 3월 31일 개최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선정위원회는 지역자원 활용도, 상품공급의 우수성, 사업목적 부합성, 가격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개 분야, 9개 업체, 19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답례품은 △송화버섯, △새꼬막, △뻘낙지, △왕새우, △한우 선물세트, △한우 채끝등심, △한우 꽃등심, △보성녹차유, △꽃차, △꽃 코디얼 세트, △녹차 막걸리 키트, △전통 방식의 된장 · 고추장 등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포함하며, △보성시니어클럽 청춘 공방의 목공예품, △보성군장학재단을 통한 지역 학생 장학금 기부 등 공예품과 기부형 답례품도 포함됐다.

보성군은 이번 추가 선정으로 기존의 녹차, 키위, 꼬막 등 지역 대표 특산물뿐만 아니라, 관광 · 체험형 상품, 천연염색 제품, 반려 용품 등 이색 답례품까지 총 96개 품목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운영하게 됐다.

## 구례군 ·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워크숍

### 민 · 관 복지 협력 강화 위한 교류 · 소통의 장 마련

구례군과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최근 구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구례군 ·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간 교류와 민 · 관 협력 강화를 통해 복지 역량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구례군 · 수영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총 84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지역 예술인의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구례군 ·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우수사례 발표, 구례의 대표 명소인 천은사 및 구만저수지 출렁다리 탐방 등 지역문화 체험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구례군의 2025년 공모 사업인 「행복체감 100℃ 복지는 달린다 시즌3」와 수영구의 「행복 충전! 마음 충전! 신중년 인생휴게소 시즌2」를 소개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 · 관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을 공동 협력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구례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임재신 민간위원장은 "이번 공동워크숍은 민 · 관이 함께 배우며 지역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 광양 '출생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정책 추진

### 평생 독자의 길을 열다… '시민의 삶을 잇는 도시' 실현

광양시는 출생부터 노년까지 책과 함께하는 시민의 삶을 실현하고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출생 직후 그림책을 선물하는 '생애 첫 책 지원사업'과 유아기, 학령기, 노년기를 아우르는 '북스타트 사업'은 책을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닌, 삶을 연결하고 돌보는 매개체로 바라보는 광양시의 독서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광양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책이 일상이 되고 모든 세대가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단지 책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 공감과 사회적 돌봄, 자존감 형성과 관계 회복이라는 독서의 본질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

'생애 첫 책 지원사업'은 책이 삶의 동반자가 되길 바라는 기대를 담아, 한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책이 함께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생애 첫 책 꾸러미를 받은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광양시는 '책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돕고, 책을 매개로 함께 성장하는 긍정적인 독서 경험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노년기에 이른 시민들의 정서를 돌보고, 이들에게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니어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 중이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광양시는 가정에서 독서 환경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책과 북스타트 도서 활용법을 담은 영상 콘텐츠 10편을 제작했다.

광양시는 '생애 첫 책 지원사업'과 '북스타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출생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독서 성장 체계를 완성했다.광양시는 책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일상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독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김미라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책은 아이와 어른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연결의 매개체"라며, "시민 모두가 책으로 위로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